

아파트 부엌의 수납실태와 거주자 만족도

허지혜, 이민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 전공

the storage space and the degree of residents' satisfaction for kitchen in apartment house

Ji-Hye Her, Min-Ah Lee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Course of Educ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도입초기에 비해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왔지만 평면의 설계는 1~2가지 평면형으로 획일화된 형태로 건설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과시적 공간구성은 수납공간의 부족과 수납형식에 있어 거주자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납공간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수납물품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실제 거주자의 물품수납에 관한 실태 및 의견을 수납가구 디자인에 반영한다면 거주자의 만족을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납공간이 가능할 것이며, 부족한 수납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조로 초래되는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부엌공간의 수납에 관한 연구의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품 수납에 관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거주자의 수납만족, 수납공간 계획에서의 거주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아파트 부엌의 수납공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수납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부엌의 기본특성과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한다.

둘째, 수납공간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납가구의 보유현황과 물품의 보관방법, 수납공간 개선경험을 알아본다.

셋째, 부엌공간의 수납만족도를 파악한다.

넷째, 부엌공간에 대한 수납요구를 파악한다.

충남 서천군지역에 90년대 이후 설립된 아파트 거

주자를 대상으로 20평형대와 30평형대 그리고 40평형대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고 이용된 조사방법은 설문지법(self-reported)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6월 12가구에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의 결과와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된 설문지로 충남 서천군지역의 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2007년 7월 2일부터 8월 24일 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을 유층 표집한 후 총 136부를 조사원이 직접 조사 대상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부를 면접 조사하였고, 136부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3. 조사결과

3.1. 부엌 수납가구 사용실태

부엌의 수납가구 중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은 조사대상 가구 모두 설치되어 있었고, 선반과 보조수납가구도 각각 64.7%, 63.2%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에 식기장식장(39.7%), 키큰장(19.9%) 등이 조사 되었다. 상부수납장에는 컵·잔류가 93.4%로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 하부수납장에는 후라이팬류와 냄비류가 각각 86.8%로 식기류는 상부수납장에 조리에 많이 쓰이며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품들은 하부수납장에 수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수납에 어려움을 느끼는 물품을 아래에서 살펴보면, '대형조리기구'가 4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차상'(43.3%), '냄비'(38.2%), '후라이팬'(33.8%), '비가공식품'(30.9%) 순으로 나타나, 수납에 어려움을 느끼는 물품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인별로는 가족주기($p < .01$), 가구수입($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아파트의 92가구(67.6%)는 수납공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납공간을 개선을 하였고 44가구(32.4%)는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선을 한 자가 소유가구는 82가구(71.3%)로 전세/월세 보다 수납공간 개선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p < .05$).

3.2. 부엌 수납 만족

부엌공간의 면적과 작업대의 배치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평균(M)은 각각 2.7과, 2.97로, 평면연결 형태는 3.07로 나타나 부엌공간의 면적에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독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엌의 수납공간면적, 수납가구의 위치, 수납방식의 편리성, 수납용량에 대한 만족도와 독립변인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평균(M)이 3.0 이하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더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가족의 형성기에는 수납공간면적과 수납용량의 만족도가 가장 부정적 나타났다($M=2.36$). 수납가구에 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불박이 가구인 상·하부수납장보다 키큰장, 보조수납가구 등 거주자의 필요로 구입한 가구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 독립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3.3. 부엌 수납 계획요소 인식

거주자가 희망하는 작업대 배치유형에서는 ‘아일랜드 형’이 40.4%, ‘ㄷ자 형’은 31.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는 가족주기와 거주기간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형성기와 확대기 가족, 아파트 거주기간이 3~8년인 가족은 ‘아일랜드 형’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특히, 축소기 가족과, 9년 이상 거주한 가족의 경우에는 많은 수납을 할 수 있으며 부엌공간을 독립된 장소로 요구하는 ‘ㄷ자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납공간 계획에 중요한 요소를 기능성(꺼내기 쉬운 수납), 편리성(작업행위와 가까운 수납), 심미성(시각적인 미를 고려한 수납), 보관성(많은 물품을 수납), 실용성(보이는 수납)의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시각적인 미를 고려한 수납’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작업행위와 가까운 수납」(27.9%), 「꺼내기 쉬운 수납」(21.3%), 「많은 물품을 수납」(13.2%)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5$), 20~

40대에서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 하는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작업의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부엌공간은 물품을 자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물품으로 구분하여 정리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수납공간 설계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용도의 물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엌공간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선반과 보조수납가구, 식기장, 식탁, 키큰장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상·하부수납장 외에 부엌공간의 수납면적과 위치, 편리성을 고려한 이동식 수납장의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부엌의 전체적인 수납 만족도는 낮았고, 그 중 수납공간면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납계획은 앞으로 수납면적 확보에 많은 중점을 두어 작은 평수의 부엌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수납을 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작업대의 배치는 부엌공간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납공간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수납공간 구획의 기능성, 편리성, 심미성, 보관성, 실용성 등의 요소에서 거주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수납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순주, 부엌 공간 사용 행태로 본 주거문화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3호, pp.17-24, 2005
- 2) 권명희, 아파트 식생활 영역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 김정식, 아파트 주방의 형태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 박경숙, 아파트 거주자의 부엌가구 사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5) 박희진, 김묘정, 아파트 부엌공간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4권3호, pp.101-108, 2003
- 6) 지역지도 www.daum.net/map
- 7) 통계청 www.nso.go.kr